
Ⅲ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59
2. 소액결제시스템	66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70
4. 증권결제시스템	72

1. 거액결제시스템

결제규모

(원화자금)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 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21년 중 일평균 488.5조 원으로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다.¹⁾

표 III-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금액(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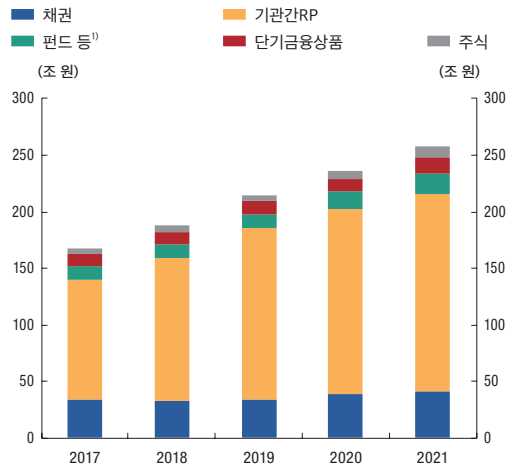
	2019	2020	2021	증감률
원화거래자금 합계	369.9	423.6	488.5	15.3
참가기관 간	353.9	405.0	465.4	14.9
콜거래자금	21.1	21.6	20.6	-4.5
증권거래자금	214.6	236.1	257.4	9.0
외환거래자금 ¹⁾	14.6	14.8	14.5	-2.5
고객거래자금 ²⁾	50.2	63.2	73.6	16.5
차액결제자금 ³⁾	18.1	22.5	25.9	15.3
기타	35.3	46.9	73.4	56.5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⁴⁾	16.1	18.5	23.1	24.7
외화거래자금 합계 (십억 달러) ⁵⁾	0.7	1.0	1.1	12.6

주: 1)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 결제금액
 2)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거액의 자금시스템(연계결제 포함)
 3)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4)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5) 예치 및 인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2020년 실시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시적 콜거래 한도 확대 조치 종료²⁾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4.5%)하였다. 반면 증권거래자금³⁾ 결제금액은 기관간RP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하였다. 기관간RP 결제금액은 2021년 중 전년대비 6.7%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I-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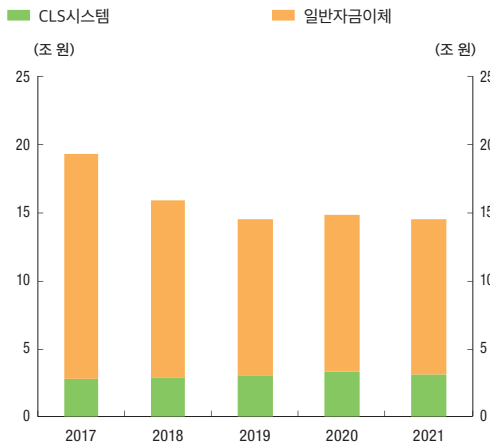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⁴⁾ 결제금액은 은행 간 환거래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자금이체(-1.5%)와 CLS시스템(-5.9%)을 이용한 결제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다.

- 2021년 중 결제 건수는 일평균 22,206건으로 전년(20,806건)에 비해 6.7% 증가하였다.
- 2020년 3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상향조정 한 후 5월 25%, 6월 20%, 8월 15%로 재조정하였다.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 역시 2020년 3월에 집합투자자산의 2%에서 4%로 확대한 후 5월 3.5%, 6월 3%, 8월 2%로 재조정하였다.
- 증권대금동시결제(DvP)와 분리결제 및 채권원리금 상환 등의 부수 거래가 포함된다. 은행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채권 원리금 상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원리금 상환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괄 수령하고 동 자금을 한은금융망 및 전자금융공공망을 통해 개별 투자자 앞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 외환거래에 따른 원화자금이체가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 것을 말한다. CLS시스템은 CLS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매도통화 지급과 매입통화 수취를 국가 간 시차 없이 동시에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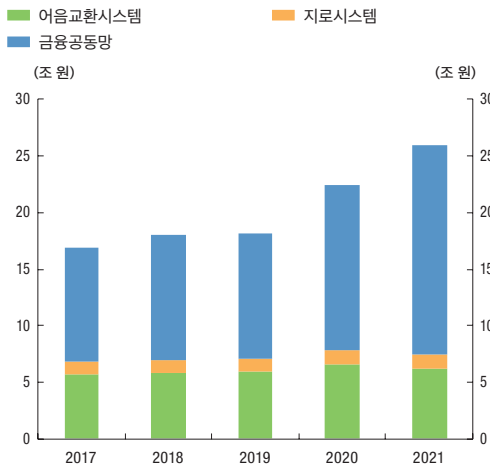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외환거래자금¹⁾ 결제금액(일평균)



주: 1) CLS는 차액 기준, 일반자금이체는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⁵⁾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하였다.

그림 III-3.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금액(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5)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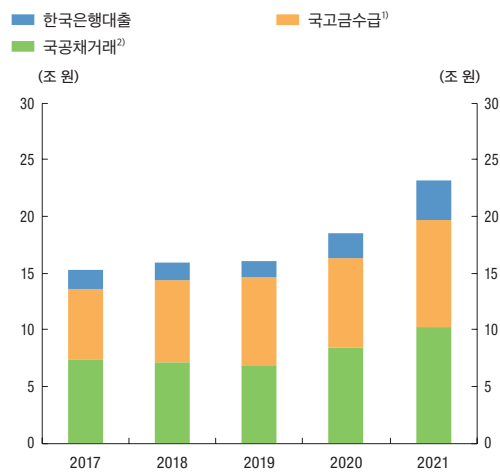
6) 한국은행은 2020년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세 차례(3월 5조 원, 5월 5조 원, 10월 8조 원)에 걸쳐 18조 원 증액(25조 원 → 43조 원)한 후 현재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 2021년 말 국고채 발행잔액은 843.7조 원(2021년 중 180.5조 원 발행, 63.6조 원 상환)으로 전년 말(726.8조 원) 대비 16.1% 증가하였다.

8) 국세수입은 2021년 중 344.1조 원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8.5조 원 증가하였다.

한편,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은 일평균 23.1조 원으로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⁶⁾로 인한 신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데다 국고채 발행규모⁷⁾와 국세수입이 증가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림 III-4.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일평균)



주: 1)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세 수납 등)만 포함

2)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환매 포함)

자료: 한국은행

(외화거래자금)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지급준비금 적립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화예수금 계정을 통해 외국환은행의 미 달러화, 엔화 등 외화자금을 이체, 예치, 인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2021년 중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예치 및 인출 포함)은 일평균 11.3억 달러로 전년대비 12.6% 증가하였다.

표 III-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금액(일평균)

(백만 달러, %)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이체	0.3	0.2	0.1	0.2	52.9
예치	347.0	333.0	510.5	568.4	11.3
인출	359.5	343.2	491.1	559.5	13.9
합계	706.8	676.3	1,001.7	1,128.1	12.6

자료: 한국은행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중 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4,921억 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다.

표 III-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십억 원, %)

	2019	2020	2021	증감률
일중당좌대출 ¹⁾	432.1	603.0	633.2	5.0
일중RP	2,618.1	2,883.2	2,858.9	-0.8
합계	3,050.2	3,486.2	3,492.1	0.2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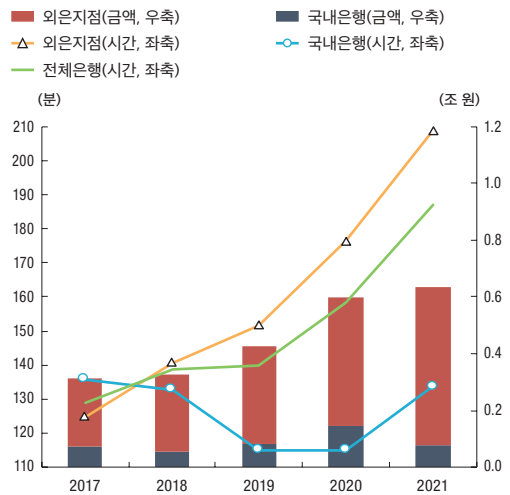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이를 매개로 하는 기업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일시 결제부족자

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일평균 6,332억 원을 기록하였다. 은행 그룹별 이용금액은 국내은행이 76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716억 원 감소한 반면 외은지점은 5,57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18억 원 증가하였다.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은 전년대비 29분 확대된 일평균 188분을 기록하였다. 은행 그룹별로는 국내은행의 이용시간이 134분으로 전년대비 19분 확대되었으며, 외은지점도 210분으로 전년에 비해 33분 확대되었다.

그림 III-5. 일중당좌대출 이용 금액¹⁾ 및 시간²⁾(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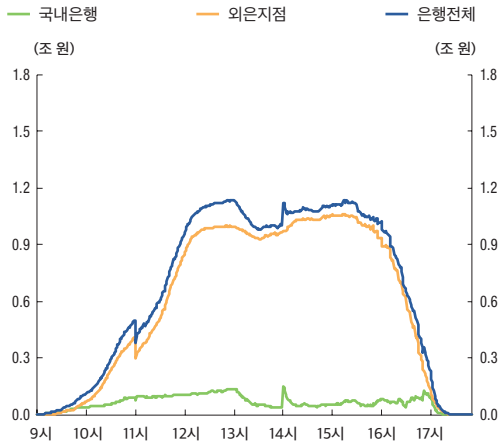
2) 참가기관별 자금 공급시간의 합계 기준(예: 참가기관이 일중당좌대출을 11~12시, 14~15시에 이용한 경우 120분)

자료: 한국은행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은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시간대에 빠르게 증가한 뒤 16시 무렵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외은지점은 대체로 오전 중 콜자금 상환과 증권대금 결제 등을 위해 일중당좌대출을 이용하고 16시 무렵부터

본격 수취하는 콜자금 등으로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는 결제 관행을 나타냈다. 일중 최고치(1조 1,397억 원)는 전년(1조 4,849억 원)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림 III-6.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¹⁾(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일중RP제도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하여 일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 중 일평균 일중RP 공급규모는 장내 채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의 일중RP 이용이 확대되었으나 금융투자회사의 일중RP 이용은 축소됨에 따라 전년보다 0.8% 감소한 일평균 2조 8,589억 원을 기록하였다.

표 III-4. 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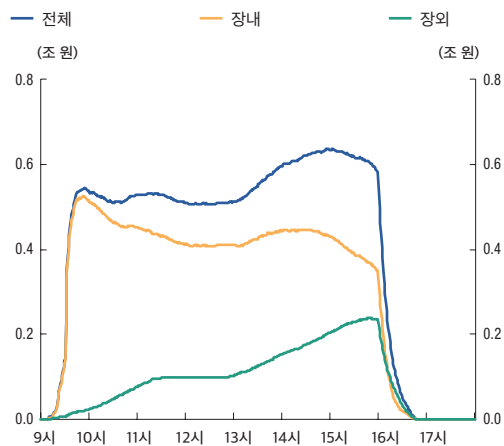
(십억 원, %)

	2020			2021			증감률
	장내	장외	계	장내	장외	계	
한국거래소	1,742.5	-	1,742.5	1,910.9	-	1,910.9	9.7
금융투자회사	472.0	668.8	1,140.8	460.6	487.5	948.0	-16.9
합계	2,214.5	668.8	2,883.2	2,371.5	487.5	2,858.9	-0.8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공급잔액은 오전 중 결제가 절반 이상 완료되는 장내 채권시장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이 10시경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13시부터는 장외 채권거래 결제를 위한 일중RP 사용이 꾸준히 늘어났다. 일중RP 공급 마감시각(16:00)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일중 잔액 상황되었다. 한편, 일중RP 공급잔액은 전년(15시 2분)보다 5분 빨라진 14시 57분에 최고치(6,362억 원)를 기록하였다.

그림 III-7. 시간대별 일중RP 잔액¹⁾(일평균)



주: 1) 분당 순공급액(일중 누적공급액-누적상환액)

자료: 한국은행

결제리스크 관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⁹⁾,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을 통해 볼 때 한은금융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비율은 3.7%로 전년(3.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 비율(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0.3%로 전년(23.5%)보다 하락하였다.

표 III-5. 대기비율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추이 (금액 기준)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비율 ¹⁾	3.5	3.8	4.1	3.3	3.7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²⁾	19.4	20.4	21.3	23.5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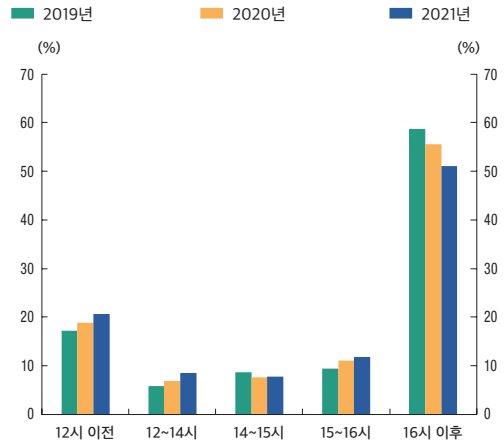
주: 1)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 되는 거래 제외)

2) 참가기관의 일별 일중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중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1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51.2%로 전년(55.5%)에 비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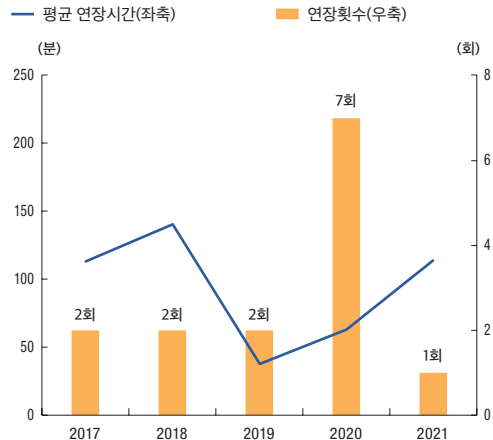
그림 III-8.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¹⁾(금액 기준)



주: 1) 각 시간대별 결제금액/총 결제금액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각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1회로 전년(7회)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연장시간은 114분으로 전년 평균(63분)보다 늘어났다. 해당 건(2021.10월)의 연장 사유는 참가기관의 전산장애에 따른 것이었다. 전산장애가 발생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재개를 위한 업무지속계획 정비, 담당직원 교육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그림 III-9.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횟수 및 평균 연장시간



자료: 한국은행

9) 한은금융망에 접수된 자금이체 지시가 당좌예금계좌 잔액 부족으로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일시 대기되는 비율이다.

참고 III-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에 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¹⁾,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44.4만 건, 21.8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8%, 10.7%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 재정지출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국고전산망 처리 규모(일평균)

(천 건, 조 원, %)

		2020	2021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9.6	48.2	-3.0
	파일 송수신	369.7	395.3	6.9
	(국고금 수납)	312.9	327.2	4.6
	(국세 환급)	56.8	68.2	20.0
	합계	419.3	443.5	5.8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7.6	19.4	10.3
	파일 송수신	2.1	2.4	13.6
	(국고금 수납)	1.8	2.1	14.9
	(국세 환급)	0.3	0.3	6.5
	합계	19.7	21.8	10.7

자료: 한국은행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을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는 125.4조 원으로 전년대비 13.0% 감소하였고, 상환규모는 144.3조 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소하였다.

1)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구축된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동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액면금액 기준)

(조 원, %)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발행	159.8	142.1	144.1	125.4	-13.0
상환	159.0	149.7	148.9	144.3	-3.1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증권매매규모는 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전년대비 28.3% 증가한 918.6조 원을 기록하였다.

증권매매 및 증권대차(액면금액 기준)

(조 원, %)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증권매매	RP 매입	0.8	11.5	42.3	4.0	-90.6
	RP 매각	600.9	536.2	662.5	908.6	37.1
	단순 매입	4.2	1.3	11.0	6.0	-45.5
	계	605.9	549.0	715.8	918.6	28.3
증권대차(차입)		0	0	0	0	-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고채권 발행규모는 180.5조 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상환규모는 63.6조 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28.9조 원으로 전년대비 36.2% 감소하였다.

국고채권,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액면금액 기준)

(조 원, %)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국고채권	발행	97.4	101.7	174.5	180.5	3.4
	상환	77.1	57.2	59.2	63.6	7.4
재정증권	발행	2.0	48.7	45.3	28.9	-36.2
	상환	2.0	48.7	45.3	28.9	-36.2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40.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6.0조 원(+17.5%) 증가하였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¹⁾

(기말 기준, 조 원, %)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금융중개지원대출	14.1	15.6	32.5	37.8	16.4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²⁾)에 대한 대출	-	-	1.8	2.5	39.0
합계	14.1	15.6	34.3	40.3	17.5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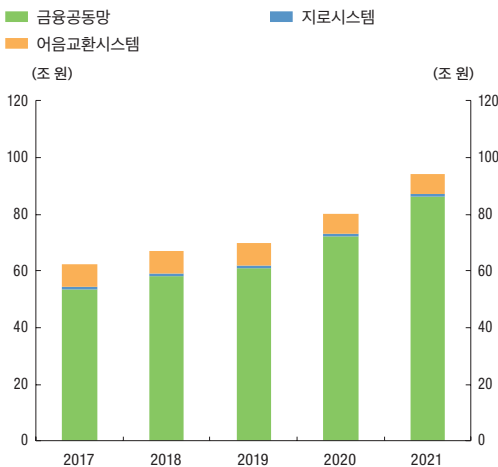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규모

2021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¹⁰⁾는 일평균 3,261만 건, 94.3조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7.0%, 17.6% 증가하였다. 이는 어음교환시스템 결제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동망 결제규모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III-1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자료: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2,832만 건, 86.2조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0.6%, 19.9%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표 III-6. 금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스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19	2020	2021	증감률	
건 수	금융공동망	20,951	23,485	28,319	20.6
	(전자금융공동망)	14,236	16,114	19,041	18.2
	(타행환공동망)	295	273	254	-6.8
	(CD공동망)	1,548	1,226	1,064	-13.2
	어음교환시스템	252	200	175	-12.7
	(자기앞수표)	245	195	170	-12.8
	(어음 등 ¹⁾)	5	4	4	-12.1
	지로스시스템	4,301	4,193	4,120	-1.7
	(일반이체)	798	727	659	-9.3
	(자동이체)	3,136	3,094	3,073	-0.7
(대량지급)	311	328	354	7.7	
합계	25,505	27,878	32,614	17.0	
금액	금융공동망	60,917	71,906	86,201	19.9
	(전자금융공동망)	54,823	65,261	78,757	20.7
	(타행환공동망)	4,679	5,191	5,504	6.0
	(CD공동망)	818	722	655	-9.3
	어음교환시스템	7,661	7,254	7,039	-3.0
	(자기앞수표)	1,132	1,043	916	-12.2
	(어음 등 ¹⁾)	3,892	3,442	3,437	-0.1
	지로스시스템	1,030	1,042	1,098	5.4
	(일반이체)	392	392	408	4.0
	(자동이체)	380	383	396	3.4
(대량지급)	247	257	286	11.4	
합계	69,608	80,201	94,338	17.6	

주: 1)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반면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규모는 일평균 18만 건, 7.0조 원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자기앞수표 교환 건수는 5만 원권 지폐, 전자방식 지급수단 등으로 대체되며 크게 감소하였다.

지로스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를 보면, 건수는 일평균 412만 건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일평균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10) 금융공동망 및 지로스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규모를, 어음교환시스템의 경우 교환규모를 의미한다.

5.4% 증가하였다.

결제리스크 관리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에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한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는 2021년 말 68.7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5.1% 증가하였다.

표 III-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¹⁾ 현황

(기말 기준, 조 원, %)

	2019	2020	2021	증감률
직접참가기관	43.5	50.7	64.2	26.6
위탁기관	3.8	4.2	4.4	4.8
금융투자회사	2.0	2.0	2.1	5.0
기타 ²⁾	1.8	2.2	2.3	4.5
합계	47.3	54.9	68.7	25.1

주: 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순이체(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2)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자료: 한국은행

2021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8.3%로 전년(17.6%)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공모주 청약¹⁾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109회)보다 크게 늘어난 171회를 기록하였다.

표 III-8. 순이체한도 이용 현황

(%, 회)

	2017	2018	2019	2020	2021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 ¹⁾	18.5	18.6	17.2	17.6	18.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 상회횟수	71	87	83	109	171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참가기관들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순이체한도의 일정비율(담보제공비율)만큼의 증권을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2021년 말 현재 담보인정금액은 38.1조 원으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설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년 말(30.8조 원)보다 7.3조 원 증가하였다.

11) 2021년 중 국내 기업공개(IPO) 공모금액은 19.7조 원으로 전년(4.5조 원)에 비해 4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참고 III-2.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어음·수표

2021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2020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감소(-11.9%)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증가(+3.6%)하였다. 이는 공모주 청약 증거금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전자어음 발행 증가¹⁾에 주로 기인한다.

어음·수표 이용규모¹⁾(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19	2020	2021	증감률
건수	자기앞수표	366	295	259	-12.1
	정액권	322	255	223	-12.5
	(10만원권)	225	170	145	-14.7
	비정액권	44	39	36	-9.3
	어음 등 ²⁾	13	11	10	-8.8
	전자어음	7.7	7.0	6.5	-6.5
	기타증서 ³⁾	1.9	1.6	1.6	-4.4
	합 계	381	308	271	-11.9
금액	자기앞수표	1,455	1,346	1,206	-10.4
	정액권	119	102	92	-9.2
	(10만원권)	22	17	14	-14.7
	비정액권	1,336	1,244	1,114	-10.5
	어음 등 ²⁾	13,175	14,124	15,008	6.3
	전자어음	1,262	2,283	3,886	70.2
	기타증서 ³⁾	2,637	2,769	2,686	-3.0
	합 계	17,267	18,240	18,900	3.6

주: 1)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제시 금액, 청구제시 금액 및 전자어음 포함

2)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전자어음 포함

3) 우편환증서,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등

자료: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2021년 중 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타행이체,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17.7%, 19.7%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방식 자금이체가 늘어 전자금융공동망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계좌이체 이용규모(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19	2020	2021	증감률
건수	입금이체 ¹⁾	16,678	18,388	21,363	16.2
	전자금융공동망 ²⁾	14,236	16,114	19,041	18.2
	(인터넷뱅킹 ³⁾)	7,838	8,980	10,934	21.8
	(펌뱅킹 ⁴⁾)	5,418	6,146	7,077	15.1
	타행환공동망	295	273	254	-6.8
	출금이체	7,883	8,768	10,604	20.9
	합 계	24,560	27,156	31,967	17.7
금액	입금이체 ¹⁾	60,843	71,753	85,656	19.4
	전자금융공동망 ²⁾	54,823	65,261	78,757	20.7
	(인터넷뱅킹 ³⁾)	25,125	29,663	37,407	26.1
	(펌뱅킹 ⁴⁾)	21,752	25,606	30,364	18.6
	타행환공동망	4,679	5,191	5,504	6.0
	출금이체	936	1,049	1,496	42.7
	합 계	61,779	72,801	87,152	19.7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타행이체 기준

3) 모바일뱅킹 포함

4)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용 금융거래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지급카드

2021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5.7%, 9.0% 증가하였다.

1) 금융투자회사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공모주 청약증거금을 활용하기 위해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지급카드별로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7.2%, 9.6% 증가하였고, 체크카드의 경우 건수 및 금액이 각각 4.2%, 7.6% 증가하였다. 반면 선불카드는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31.3%, 25.8%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1년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²⁾가 2020년에 비해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¹⁾

(천 건, 십억 원, %)

		2019	2020	2021	증감률
건수	신용카드	40,685	39,211	42,044	7.2
	체크카드	24,141	23,187	24,163	4.2
	선불카드	86	734	504	-31.3
	기타 ²⁾	141.4	141.8	189.5	33.7
	합계	65,053	63,273	66,900	5.7
금액	신용카드	2,131	2,109	2,312	9.6
	체크카드	532	540	581	7.6
	선불카드	2.5	17.0	12.6	-25.8
	기타 ²⁾	2.4	2.3	2.8	24.6
	합계	2,669	2,669	2,909	9.0

주: 1) 개인 및 법인(국내외 가맹점) 기준
 2) 현금IC카드 및 직불카드
 자료: 전업카드사 및 경영은행, 금융결제원

지급방식별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의 영향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확대되면서 비대면 지급 이용금액이 전년대비 16.2% 증가하였다. 대면지급의 경우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 등을 결제단말기에 접촉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전년대비 9.7% 증가하였다.

지급카드¹⁾ 지급방식별 금액(일평균)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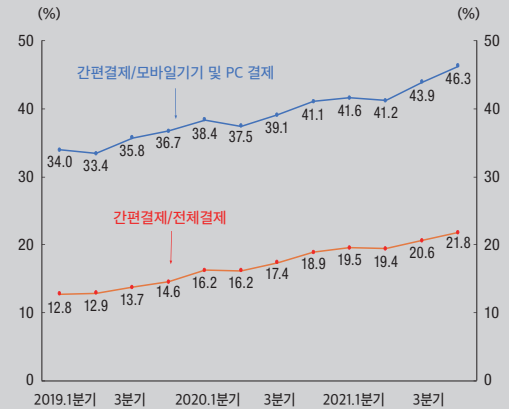
(십억 원, %)

	2019	2020	2021	증감률
대면지급	1,477	1,394	1,434	2.9
(실물카드 제시)	1,355	1,255	1,282	2.2
(모바일 기기 등 이용)	122	139	152	9.7
비대면지급	728	849	986	16.2
합계	2,205	2,242	2,421	8.0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자료: 전업카드사

한편 모바일·PC 등을 이용한 대금 지급 중 간편결제 서비스³⁾를 이용하는 비중은 편의성 선호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비중¹⁾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총 14.2조 원) 중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1.84조 원이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총 10.7조 원, 이의신청 지급분 제외) 중 선불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1.11조 원이다.
-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하여 재화·서비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결제규모

외환결제는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시스템¹²⁾,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¹³⁾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2021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금액¹⁴⁾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7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III-9. CLS시스템 결제규모¹⁾(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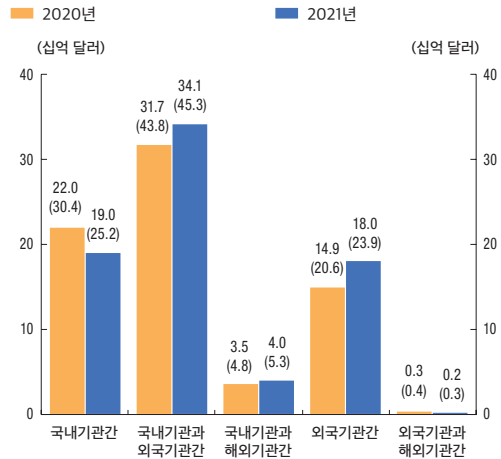
(십억 달러, %)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65.4	74.3	72.4	75.3	4.0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다자간차감 전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CLS시스템 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¹⁵⁾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25.2%, 외국기관 간 결제가 23.9%를 차지하였다.

그림 III-11. 결제주체별 CLS시스템 결제규모¹⁾²⁾(일평균)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 (다자간차감전 총액) 기준

2) () 내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참고로 2021년 말 현재 22개국 2만 8,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LS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6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개, 국내 금융투자회사 9개, 외은지점 19개, 외국 금융투자회사지점 1개)이 참가하고 있다. 2021년 중 1개의 국내 금융투자회사(키움증권)가 CLS시스템에 신규 참가하였다.

12)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국가 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를 설정하고 동 시간대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으로 CLS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는 각 통화별로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 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continuous) 연계(linked)되어 결제(settlement)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13)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통화별로 외화예수금 계좌를 개설해 놓은 국내 운영기관(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다수의 은행이 외화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동일시간대에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한편 위안화에 대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은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이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14)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결제 중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15) 국내기관(국내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외국기관(국내 소재 외은지점 및 외국금융투자회사 지점) 및 해외기관(해외 소재 외국은행 및 외국금융투자회사)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10. CLS시스템 참가 현황

(2021년 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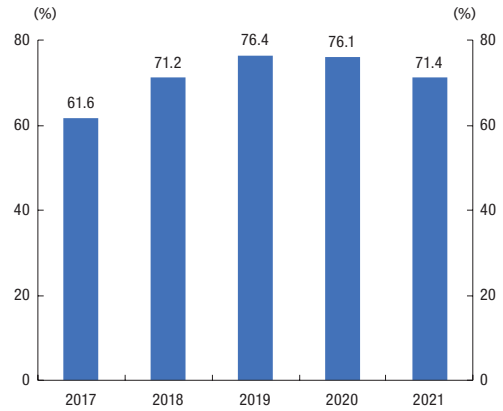
결제 주체		참가기관
국내기관	은행 (17)	국민, 농협, 광주, 대구, 하나, 수협, 수출입, 부산,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우리, 신한, 제주, SC제일, 한국씨티
	금융투자회사 (9)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외국기관지점	은행 (19)	HSBC, BOA, BNP파리바, SMBC, ING, 모건스탠리,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엠유에프지,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 DBS, 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소시에테제네럴, 대화, 중국, 미즈호, ANZ
	금융투자회사(1)	노무라금융투자

자료: 한국은행

결제리스크 관리

외환동시결제 규모가 증가할수록 매입통화와 매도통화 간 결제 시점 불일치로 인한 외환결제 리스크가 낮아지는데, 2021년 중 외환동시결제 비중(71.4%)은 전년(76.1%)에 비해 4.7%p 축소되었다.

그림 III-12.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¹⁾²⁾(일평균)



주: 1) CLS결제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2)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한편, CLS시스템은 외환결제를 다자간 차감 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필요 결제 유용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2021년 중 CLS 시스템 이용에 따른 금융기관의 원화 결제유동성 절감비율¹⁶⁾은 97.6%로 나타났다.

16) 결제유동성 절감비율(%)=[1-(실제납입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 = (유동성절감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

4. 증권결제시스템

결제규모

2021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221.7조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이 중 장내거래 결제규모는 일평균 3.6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8.4% 증가하였다. 장외거래 결제규모는 일평균 218.0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8.1%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관간RP(+6.8%) 결제규모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표 III-11.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십억 원, %)

구분	2019	2020	2021	증감률	
장내결제	주식	484	758	945	24.7
	채권 ¹⁾	1,898	2,413	2,568	6.4
	파생금융상품	108	195	135	-30.6
	소계	2,489	3,366	3,648	8.4
장외결제	주식 ²⁾	669	915	1,108	21.0
	채권 ³⁾	10,508	12,399	12,120	-2.2
	기관간RP	155,271	169,422	180,953	6.8
	단기금융상품 ⁴⁾	10,061	9,964	13,338	33.9
	펀드 등 ⁵⁾	7,357	8,961	10,424	16.3
	파생금융상품 ⁶⁾	45	66	65	-1.6
	소계	183,911	201,727	218,008	8.1
합계	186,400	205,093	221,656	8.1	

주: 1) 국채(RP 포함) 및 일반채권 결제

2)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간 결제

3)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4) CD, CP, 전자단기사채의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5)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환매 대금

6) 한국거래소 청산 적격IRS 결제금액

*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여러건의 결제가 일방향의 단일건으로 처리되는 결제방식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결제리스크 관리

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에 지급되지 않거나 동시에 교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2021년 중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장내주식 거래는 기준시한 이전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 그러나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에서 기준시한 이후 결제가 각각 2건 발생하였다. 다만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이 해당일 전체 결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장내국채 0.57%,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0.001%)이었다.

표 III-12.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건)

구분	결제 시한 ¹⁾	기준 시한 ²⁾	2019	2020	2021
장내주식	16:00	16:00	0	0	0
장내국채	16:00	17:00	0	0	2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16:50	16:50	3	0	2

주: 1) 시스템 운영 규정상의 납부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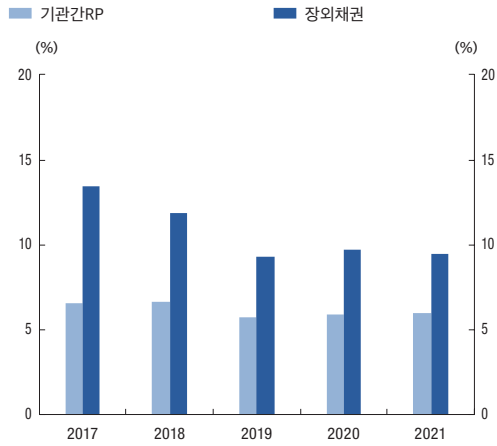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자료: 한국은행

기관간RP 및 장외채권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¹⁷⁾의 비중이 2021년 각각 5.9% 및 9.5%로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17) 증권결제 시 대금지급이 수반되지 않은 증권의 인도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대금동시결제와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상 시차가 발생하므로 결제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III-13.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¹⁾²⁾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의 비중

2) 장외채권의 경우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연쇄결제* 차감 후 기준)

*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여러건의 결제가 일방향의 단일건으로 처리되는 결제방식

자료: 한국예탁결제원